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3. 9. 22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알카에다, 프랑스·스웨덴에 테러 위협
 - 9.15 언론은 알카에다가 그들의 최신호 잡지인 '사다 알말라힘'에서 최근 교내 무슬림 드레스 '아바야' 착용을 금지한 프랑스와 코란을 불태운 스웨덴에 테러를 경고했다고 보도
- 벨기에, 역사상 최악의 테러범들에게 '종신형' 선고
 - 9.16 외신은 벨기에 법원이 지난 '16년 브뤼셀 공항과 지하철에서 연이어 발생(사망 30, 부상 200)한 폭탄테러와 관련하여, 피고인 5명에게 '종신형'을 선고하였다고 보도
- EU, 테러사건 관련 정보 교환을 위한 새 법률 승인
 - 9.18 언론은 유럽 이사회가 EU 회원국과 유로저스트*간 통신 채널을 구축하는 등 테러 관련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는 법을 최종 승인, 앞으로 테러사건 수사를 위한 조정·협력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보도
 - * 유럽 내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사법협력을 위한 EU의 형사사법공조 기관

미주

- 美 하원, 이란 인권·무기개발 제재안 만장일치 통과
 - 9.13 언론은 미국 하원이 이란의 인권탄압과 테러 지원 및 무기류 수출입 확대를 이유로 이란 대통령 등 고위급 정치 지도자 개인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안을 초당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
 - ※ 同 제재안은 히잡 착용 불량을 사유로 심문받던 여대생 「아미나」 사망 후 벌어진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 데 대한 징벌적 성격이라 부언
- 美 뉴욕, 신원조회를 강화한 총기·탄약법안 변경 발효
 - 9.13 뉴욕주는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총기 소매업주가 연방수사국에 소비자 신원조회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통보받는 방식에서 州경찰을 통해 연방수사국에 신원조사를 의뢰·통보받는 것으로 법안 발효

아 · 태평양

- 中, 탈레반 집권 이후 최초 아프간 신임대사 임명
 - 9.14 언론은 중국이 '21.8월 아프간에 탈레반 정권이 들어선 후 최초로 대사를 파견, 신임장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탈레반은 兩國 교류를 통해 정치, 경제 등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
- 韓, 최근 5년간 총포·도검 등 불법무기 소지·판매 851명 적발
 - 9.16 언론은 지난 '18~'22년간 불법무기 소지(64.5%, 549명), 판매·판매 글게시(35%, 298명) 등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851명이며 불법무기 유형은 도검류 35.6%(303명), 총포 21.7%(185명), 가스총 9.5%(81명) 등 이라고 보도
 - ※ 불법무기로 지난 5년간 총 31건의 사건·사고가 발생,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
- 韓 경찰, 공항 5개소 폭탄테러 협박범 검찰 송치
 - 9.19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6~7일 온라인 게시판에 제주·김해·대구·인천·김포국제공항 대상 폭탄테러와 살인 예고글을 게시해 항공 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30대 남성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발표

중 동

- 사우디·인도, 경제·안보·대테러 협력 강화 선언
 - 9.12 언론은 사우디 「빈살만」 왕세자가 인도 「모디」 총리와 양국 간 에너지·무역·국방·테러 대응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

아프리카

- 탈레반, 아프간에서 활동하던 NGO 직원 18명 구금
 - 9.16 언론은 탈레반이 아프간 고루주에서 보건, 교육 등의 활동을 하던 스위스 기반 비정부기구(NGO) 국제지원단(IAM) 소속 직원 18명 (미국인 1명 포함)이 기독교 선전 혐의로 구금되었다고 보도
 - ※ 탈레반은 샤리아(이슬람 율법)를 앞세워 여성이 NGO·UN 등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

아프카니스탄, 카불 모스크 인근 폭탄테러 발생

- '22. 9. 23 아프간 수도 카불內 모스크 인근에서 차량폭탄 테러가 발생, 어린이 포함 9명 사망 41명 부상
 - * 사건 직후 카불 경찰은 “모든 사상자는 민간인으로, 모스크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을 노린 테러”라고 발표
- 탈레반은 “모스크와 예배자를 표적으로 삼는 건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며 테러 배후를 처벌할 것”이라고 비난
 - * 언론은 “21.8 탈레반이 아프간을 재집권한 이후 발생한 모스크 대상 테러 공격 중 가장 치명적인 사건”이라고 보도
- 또한, 미국도 “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공격은 정당화될 수 없다”고 비난하면서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현
- 한편, 탈레반은 '22.9.30 카불內 교육센터에서 모스크 차량폭탄 테러와 유사한 공격으로 53명이 사망하자, 두 사건의 배후세력을 이슬람 국가(ISIS)로 지목하고, ISIS 조직원 6명을 사살('22.10.21)
 - * ISIS는 지속적으로 탈레반이 미국·시아파 등을 대하는 태도가 온건하다고 비난, 탈레반 재집권 이후 카불지역에서 이슬람국가 호라산(ISIS-K)의 테러가 지속 발생

< 탈레 반(Taliban)>

- (목표) 아프가니스탄內 외세축출 및 이슬람 신정국가 수립
 - * 테러단체 지정 : 러시아('03.3), 캐나다('13.5), UAE('14.11) 등은 과거부터 테러단체로 지정, 반면 UN·美·EU 등은 탈레반과의 평화협상을 고려하여 테러단체로未지정
- (조직규모) 58,000~100,000명('21.5, UN)
- (연계세력) 알카에다, 「파키스탄 탈레반」(TTP) 등
- (핵심인물) 물라 하이바툴라 아쿤자다(최고 지도자)
- (활동지역)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 접경지역
- (활동수법) 주요 도시에서 정부청사·국제기구 등 대상 폭탄테러
- (주요동향) '21.8 美軍 철수 이후 수도 카불점령 후 과도정부를 출범(9.11)하였으나 현재까지 국제사회에서는 정상국가로未인정